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정당성 확보...사업 속도 낸다

광주고법 '롯데건설 담보물 권리행사 통한 지분 확보 정당성 부여' 한양 '시공권'·케이앤지스틸 '주주권 확보' 패소...대법 상고 검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주주권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시공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주식회사 한양 측이 패소하고, 한양 측과 함께 롯데건설에 맞선 케이앤지스틸도 주주권 확보를 위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결국 이번 항소심 법원에서 롯데건설의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이다.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긴 했지만, 롯데건설은 다수 지분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6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

법인·SP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케이앤지스틸이 피고를 상대로 한 소를 각하하고, 우빈산업 주식을 근질권 행사로 가져가 소송 승계를 받은 롯데건설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이 사업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이

출자에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는데, 2020년 4월 광주시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한양파와 비한양파로 갈려 갈등이 반복됐다.

비한양파인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빛고을 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2002년 5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결을 밝힌 이후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하고 지분율 49%의 컨소시엄 최대 주주가 됐으나,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과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콜옵션 행사도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

공원 특례사업에서 시공권을 롯데건설로 결정하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양 측도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다.

한양은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도급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신 한양 측은 비한양파인 우빈의 주식 (25%)을 되찾는 소송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최종 승소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공권 대신 사업권을 확보하려던 계획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행사해 우빈 주식 25%와 함께 케이앤지스틸 주식 24%를 가져가면서 환수 받을 주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도 롯데건설이 행사한 근질권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49%를 취득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변경)까지 마쳐 원고 측이 이번 소송으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며 "롯데건설의 근질권 실행과 주식 취득이 무효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결과는 롯데건설이 근질권 행사를 우빈과 케이앤지스틸 주식 49%를 확보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롯데건설이라는 공동의 적을 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측의 지분 확보 시도는 난항에 처하게 됐다.

케이앤지스틸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롯데건설은 근질권 행사로 SPC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이번 소송 결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아파트와 공원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위기를 기회로...광주시, '트럼프 관세정책' 맞서 수출산업 총력 대응

강 시장, 수출유관기관과 긴급회의 자동차·가전 등 기업지원방안 논의 정부 추경에 R&D 예산 반영 제안

광주시와 수출 유관기관들이 '트럼프 관세정책'에 맞서 지역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광주일보 2월 6일자 1면)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6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광주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전남KOTRA지원단,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광주산학융합원 등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긴급회의 개최는 '트럼프 관세전쟁'에 대한 지역

의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운영해 온 '기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도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함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관세정책 기조 및 자동차·가전 분야의 수출 둔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토론했다. 또 국내 완성차기업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대응방안 등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일단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없지만 대외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등의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협력기업이 대부분으로, 정부 추경 편성 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보를 비롯한 블루오션 공략이 가능하고, 기업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허제출 개발비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경제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산업 중에서 대미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전 및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 전반에 대한 선제 대응·종합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단에서는 지역 대기업과 협력업체 방문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관세부와, 환율변동 등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위기가 올 때 반드시 기회도 같이 오리라 믿는다"며 "트럼프 2.0 방향에 대한 지역산업 구성원 모두의 면밀한 고민을 통해 자동차와 가전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TTENTION!
부치는 짐(위탁) 금지물품 안내
Prohibited items for checked baggage / 託送荷物禁止物

라이터,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항공기 내 휴대가정용 물품은 안 됩니다.

라이터 / 打火機
전자담배 / E-cigarettes / 電子煙草
보조배터리 / Supplementary battery pack/充電器

항공기 내 휴대 금지물품 안내
Prohibited items for carry-on baggage / 機上 荷物 禁止物

액кумуля터는 부치는 짐에 넣으세요.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등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참사, 최대 18개월 내 조사 마무리

사조위, 국회 특위 업무보고 타임라인 재구성 종합 조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6일 "최대 1년에서 1년 반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열 사조위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사조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난해 20일까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등과 공조해 초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27일에는 예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단장은 "조사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최종보고서 등 작성 단계에서 NTSB 나 BEA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항공분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사고 직전 4분 7초간의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관제사의 녹취록 또는 폐쇄회로TV(CCTV),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정부, 가스징후 일부 확인했지만 유의미한 수준 아나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포착됐지만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원암, 저류암, 트랩, 덮개 등으로 구성되는 유전 지층 구조인 '석유 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외자 유치를 통해 추가 탐사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최초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

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탐사시추가 최근 끝난 가운데 이뤄졌다. 작년 12월 20일부터 진행된 첫 탐사시추는 지난 4일 끝났다.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전남 부산항에서 출항해 떠났다.

최 차관은 해수면 아래 3000m 이상 깊이의 해저까지 파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진흙을 채취해 검사하는 '이수 검증' 결과, 목표 유량

구조 주변에서 미세한 수준이나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경제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쳐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추가 탐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포화도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시추 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가스 포화도로는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설치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분리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친환경제 (Nexchx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1997 태리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액인정, 수출유망기업 수상
2016 나중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 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리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문중 임시총회 소집공고

1. 총 회 명 : 고성이씨 전사공파 대목문중
2. 총 회 장 소 : 전남 나주시 다사면 월래리 587-75 백암사당 (비서터미널 옆)
3. 참석종원자격 : 위문중 후손으로만 19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
4. 총 회 일 시 : 2025. 02. 15. 오전 12시
5. 소 집 안 건 : 전남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산 58-10 일야35.618m에 관하여 매대금89만원에 매도처분하는건
6. 의결절차 : 총회규약 제9조에 의거 총회에 참석한 수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7. 의사록 작성 및 기명날인 : 대표자, 임원 1인, 이기남, 이남중 이상 4인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2월 7일
 소집종원인 문중대표자 이필호
 연락처 010-6733-6161

73년을 밝히는 호남인문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중 266-1960
	• 광 광 525-3761	• 신 민 222-8171
	• 광 신 571-7659	• 오 치 266-7001
	• 용 동 43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0054
	• 동 부 225-6001	• 동 원 222-0054
	• 중 광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동 선 673-6836	• 송 화 675-68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풍 말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